3년만에 왁자지껄 수학여행…아이들 웃음꽃이 피었다

서일초 광주 첫 수학여행…'드림잡 스쿨'서 당일치기 진로·직업체험
"친구들과 학교 밖 나가니 즐거워요"…다음달 고등학교도 잇따라 추진

28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서일초등학교는 들뜬 분위기가 역력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3년만에 재개 돼, 6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수학여행 길에는 모두 4학급인 6학년생 81명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3명을 제외하고 78명이 버스를 타게 됐다.

오전 8시 50분이 되자 버스를 타기 위해 아이들이 삼삼오오 학교내 공터에 모이기 시작했다. 반별로 모이는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마스크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얼굴에선 웃음꽃이 사라질 줄 몰랐다.

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주차가 불가능해 아이들은 후문을 통해 버스가 주차된 곳으로 200여m를 걸어가면서도 친구들과 장난치느라 바빴다.

아이들은 배웅해 주는 선생님들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며 인사하며 학교를 나섰고 선생님들도 "조심히 재미있게 다녀와"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장서연 양은 "친구들과 같이 학교 밖을 나가는 수학여행을 가게 되서 너무나 좋다"면서 "친구들과 같이 자주 체험학습을 나가고 싶다"고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일치기 수학여행이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승진 군은 "하루만에 갔다 오는 것도 오히려 좋다"면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다녀오고 싶다"고 즐거워했다.

이번 수학여행에 앞서 학교측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여행 기간과 장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예상과 달리 '1박 2일 보다는 당일로 가는 게 좋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희망 장소로 아이들은 패밀리랜드를 선호했지만, 학부모들은 직업체험 등의 체험학습을 더 원했다.

결국 학교측은 광주 진로·직업체험 기관인 '드림잡 스쿨'에서 체험학습을 당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신 이튿날인 29일에는 학교에서 사자춤 공연을 관람하고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전통연희 놀이교육 체험을 하기로 했다. 당일치기 수학여행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다.

수학여행을 인솔한 송미아 교사는 "당일치기 수학여행이라는 점에서 아쉬워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미리 일정을 잡아 진행한터라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서일초를 필두로 광주지역 학교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을 일제히 시작했다. 당장 다음달에는 2개 학교가 수학여행 일정을 확정했다.

금파공고는 5월 2~4일 전교생이 대전 오월드와 여수 아르떼뮤지엄, 전주한옥마을 등을 찾아갈 계획이다. 매일 학교에서 아침에 출발해 오후 5시께 학교로 돌아오는 비숙박형 수학여행이다.

운남고도 5월 16~18일 수학여행 일정을 잡았고, 서석고는 오는 6월 21~24일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서석고는 3박4일로 숙박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1학년생은 제주도로, 2학년생은 서울 근교로 테마별 여행을 떠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밖에 4개 학교에서 5월 내 수학여행 가능 여부와 방역 수칙, 숙박 가능 여부를 문의해 왔다고 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학여행 신나요" 2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일곡동 서일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 출발을 앞두고 즐거워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양모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목포 민주당 입당원서 파일 유출 의혹 수사

시장 후보 경선 앞두고 고발장 접수…경찰, 관련자 소환조사키로

목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 입당원서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목포경찰은 28일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사건' 관련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 인사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앞서 목포시장 후보 경선(28~29일)을 앞두고 목포시민 약 8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입당원서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의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 특정 후보 측을 돕기 위해 명부 파일을 유출했다는 설이 목포 정가에선 파다한 상황이다.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 중앙당은 목포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입당원서 파일 유출과 관련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과거 근무했던 보좌관이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안다. 중앙당과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지역 정가에선 경찰 수사 및 중앙당 조사 결과에 따라 목포시장 후보 경선의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휴가 나온 군인 광주서 극단 선택

경남으로 입대한 뒤 첫 휴가를 맞아 광주 집으로 왔던 이등병이 극단적 선택을 해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이등병 A씨가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가족에 남긴 편지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편지를 본 A씨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지난 22일 신병 위로 휴가에 개인 휴가를 더해 고향인 광주로 왔고, 27일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기초 수사를 마친 뒤 군 당국에 사건을 인계했다. 군 당국은 A씨 유족과 소속부대 조사를 통해 가혹행위 존재 여부 등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을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2순환도로 달리던 차량 돌연 화재

10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28일 오전 8시 20분께 광주 제2순환도로 서창교차로에서 유덕IC 방면으로 달리던 티볼리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량 내부를 모두 태운 뒤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출근시간 도로 통제가 이뤄지면서 제2순환도로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는 주행 중 조수석 쪽 에어컨에서 '파지직' 소리를 들었고, 이후 타는 냄새와 함께 보닛에서 연기가 올라오자 차를 갓길에 세우고 119에 신고했다.

불이 난 차량은 2017년식으로, 연료공급 호스 결함에 의한 화재 위험으로 지난 2020년 리콜 대상에 올랐던 차다.

다만 소방당국은 엔진 부분이 불에 타지 않았다며 기름이 새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수석 쪽 전기 배선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